

“전하! 문수동자 만났다는 것 절대 발설치 마십시오”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입다 16
7대 세조-광릉(2)



광릉 전경.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참도가 없다.

상원사로부터 월정사에 이르는 계곡물은 팔팔 거짐없이 흐른다. 왕은 호위하는 시종들을 밀치잡지 물리고 홀로 상수리나무 가지를 헤치며 계곡으로 내려간다. 온몸을 뒤덮다시피한 피부병에 정신이 혼미하다. 굵고 굵어서 진물이 나고 딱지가 일어 그 꼴이 처참하다. 누구를 원망할 힘조차 없다. 꿈에 짐을 뺄어 이 지경을 만든 행수도, 온 나라를 뒤져 명약이라고 갖다 바친 어의들도 미워하고 호풍 칠 힘이 없다. 목덜미를 긁으면 연구리가 또 가렵다. 손톱에 살점이 묻어나도록 긁는다.

거추장스런 옹포가 나뭇가지에 걸린다. 시종들이 보이지 않는 바위 뒤에 이르러, 화려한 옹포를 찢듯이 벗어던진다. 진물 질질 흐르는 알몸이 된다. 중천에 뜬 여름해가 별거벗은 왕을 내려 본다. 풀부리를 피해가며 물속에 몸을 담근다. 아! 시원하다. 홀로, 별거벗고, 맑은 하늘 아래, 처음이다. 이것이 자유인가. 뻥속까지 시원 기운이 파고들지만 개되지 않는다. 얼골과 가슴, 사타구니를 씻는다.

그 때, 딱딱나무 잎사귀 사이로 언뜻 인척이 난다. 왕은 흘쩍 놀란다. 자객인가? 평생 처음 맞는 황홀한 순간인데, 내 목을 노리는 놈이 여기까지? 조그만 아이가 행상을 드러낸다. 왕은 숨을 고르고 몸을 움츠린다.

“너, 넌 누구냐? 이 산중에?”
“아랫마을에 사는 아이예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혼자 목욕하세요?”

휴우! 왕은 긴장을 푼다.
“아저씨, 뭘 물어드릴까요? 아저씨 몸에 점이 많네요.”

얼룩진 피부를 보고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
“허허, 그래 점이 많지. 시원하게 등을 밀어주세요.”

왕은 등짝을 아이에게 맡겼다.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이 정성스럽게 등을 민다. 시원 물을 끼얹으며 등을 민다. 간지럽고 시원하다.

“아가야, 됐다. 허허! 산중에서 아이를 만나 등을 밀다니, 그런데 아가야, 산을 내려가서 누구에게도 지금 일을 말해서 안 된다. 계곡에서 왕을 만나 왕의 등을 밀어주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내 뜻은 아니지만 너는 왕의 몸에 손을 댔다는 죄목으로 죽음을 당한다. 명심해라.”

“예, 전하. 전하께서도 약속하십시오. 상원사 계곡에서 문수동자가 등을 밀어주었다고 결코 발설하지 마십시오.”

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이는 이미 흔적

도 없다. 아이의 손이 닿은 왕의 몸은 말갱다. 시궁창 같던 온몸이 뽀송뽀송하다. 세조는 아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합장했다. ‘아! 문수보살이시여...’

왕은, 상원사 일대와 오대산 전 암자를 뒤졌지만 동자를 찾지 못했다. 이른날 화공을 불러 자신이 보았던 문수동자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화상을 그리게 했는데 두 번을 그려도 모양이 같지 않더니 세 번째 가서야 겨우 비슷한 형상을 그렸다. 이렇게 그려진 문수동자 화상은 상원사에 받들어 모시고 강릉 신석평 7백석지가 땅을 하사하여 문수동자를 위해

세조는 상원사 사방 40리의 일야와 강릉 일대 만석 전답을 하사하고 묘전(墓田)과 고양이 석상을 조성했다. 또한 세조는 신미대사와 상의하여 상원사를 크게 중창하고 안동에 가 있던 상원사 대종을 옮겨오도록 명했다. 세조 12년(1466) 상원사 중창 낙성식에 왕이 직접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행차했다.

세조의 숭불 업적은 화려하다. 신복사, 내원사, 쌍봉사, 해인사 등 여러 사원에 노비를 하사했다. 건봉사, 표훈사, 회암사, 도갑사 등을 중수하고 용문사와 흥천사에 중을 기증했다. 세조 7년에는 천민들의 출

죽이고,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고 급기야 죽여 버렸다. 명분과 예를 중시하는 유교적 입장에서 용납될 수 없다. 세조의 친불정책은 유교 이념에 투철한 성리학자들을 견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도 끝없는 참회를 통해 업장을 녹여려는 치열한 수행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광릉은 애초부터 세조가 편히 안장될 곳은 아니었다. 왕릉 택지에 관련된 이들은 극락과 지옥을 오가야 한다. 채택되면 일약 벼락처럼, 흥결이 도출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조선 왕실은 특별한 왕릉

으로 신권을 높였다. 신하들의 군기를 잡는 방법 중에 왕릉 점령보다 더 막강한 특효약은 없다. 광릉은, 주변 산모양이 기이하고 빼어나다는 품평에 따라 정흥지의 선산이 채택되었다.

정흥지는 정창손의 아버지다. 정창손은 세조 때 영의정을 지냈고 광릉 택지 시 좌익공신에, 봉원군으로 시퍼렇게 살아 있는 실세였으나 그의 문종 선산이 왕릉으로 택지되었다. 이미 8기의 무덤이 자리한 선산을 송두리째 이장당한 정창손을 달래기 위해 예종은 호조에 명한다. ‘정창손에게 관곽 8개와 유둔(기름칠한 천막)8개, 종이 100권, 쌀과 콩을 100가마 내려주어라.’ 또 승정원에 명하여 경기관찰사는 선산 이장에 필요한 인부 50명을 뽑아 보내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다. 인근 수백여 민초들의 무덤은 굴뚝도 없다.

세조의 오른 쪽 언덕에 누운 비 정희왕후 윤씨 또한 대단한 용맹자, 지략가다. 계유정난 당시 거사가 누설되었다며 손석순 등이 민류하자, 중문에 이른 수양대군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 거사를 결행했다. 특종, 예종과 의숙공주 등 2남1녀를 두었다. 말아들의(경세자, 특종)이 20세로 요절하고 둘째 아들 예종이 19세에 즉위하자 최후로 수렴청정했다. 예종이 재위 1년2개월 만에 죽자 만이들이던 특종의 둘째 아들(그녀의 손자) 자율신군을 즉위로 즉위케 했다. 그가 성종이다. 남편, 아들, 손자의 즉위에 직접 힘을 쏟아 부은 대단한 여인이다. 정희왕후는 1483년(성종 14) 은암 행궁에서 춘추 66세로 승하했다. 세조는 그녀보다 15년전, 1468년 9월 7일 병세가 악화되어 왕세자(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이튿날 수강궁에서 보령 52세로 승하했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경전 언해사업 등 숭불 업적 화려... ‘석보상절’ 역작 ‘친불정책’ 성리학자 견제 및 업장 소멸의 수행 방법 상원사에 모셔진 문수동자 화상 소실되고 목각만 남아

매일 불공을 드리도록 했다. 화상은 지금 소실되고 분당 오른쪽에 목각 문수동자상이 모셔져 있다.

상원사와 세조의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100일 기도 덕분에 문수동자를 친견하고 병이 나았다. 이듬해 세조는 기적의 성지인 상원사를 다시 찾았다. 불전에 참배코자 법당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난데없이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지엄한 옹포 자락을 들고 들어간다. 깜짝 놀란 시종들이 막대기를 후려치며 고양이를 쫓았으나 앙칼진 비명을 지르며 옷자락을 놓지 않는다. 왕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병사들을 시켜 법당을 살살이 뒤지라했다. 그러자 불상을 모신 수미단 속에 자객이 숨어있었다. 자객을 붙잡아 끌어내자 옹포를 들고 들어간 고양이는 사라졌다.

가를 허락하고 9년에는 대원각사를 중창했다. 현존하는 원각사지 13층탑(국보 2호)도 세조 때 조성된 것이다.(세조12년, 1467)

경전의 언해사업도 화려하다. <법화경>, <선종영가집>, <금강경>, <반야심경> 등을 한글로 번역했다. 석가모니의 전기인 <석보상절>은 세조의 역작이다. 모두가 불교적, 국어학적 보배다.

세조의 숭불, 불교 융성의 치적을 어떻게 이해할까. 진정한 신앙심의 발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심과 더불어 선택적 측면도 있다. 세조는 유교적 입지가 취약하다. 불교 융성책은 유교적 입지가 허약한 세조의 선택이기도 하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가 행한 패륜적 행적은 삭제되지 않는다. 형제들을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상(국보221호).

원주생식은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배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고양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연이 기르려온 그대로의 영양과 사물이 가리지 않는 영양을 제대로 섭취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2개월분 60,000원	건강에 행복을 더한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60,000원	자연의 정취와 맛을 배려한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평온, 맑은, 깊은 영양 원주홍신식 2개월분 80,000원	100% 국산콩을 선별하여 만든 원주청국장분말 1kg 20,000원	장곡의 영양을 원으로 원주청국장완 1kg 25,000원

주문처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1111-1번지 **무상사현진암**
☎ 053-986-5921
우체국 70334-01-001873 (예금주: 무상사)

9종 9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의 **약왕사名品紅蔘**

사찰에서 직접 만드신 **“홍삼 엑기스”**

명품홍삼은 약왕사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100%순수 홍삼입니다. 완전 차별화된 최고의 국내산 6년근 수삼을 100일에 걸쳐서 구운 구운(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을 갖출때와 자기 몸에 발인 자체 홍기삼과 불산산 자정수(검로수)로써 게르마늄함량에서 전혀 금속에 닿지 않고 저온에서 숙성시켜 최고의 홍삼입니다.

- 면역기능 증진 효과 및 암의 보조요법으로서의 유용성
-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에 대한 효과
- 노년활동 촉진효과 및 신경세포 보호작용
- 신체조절기능의 향상성 유지작용
- 피로회복 및 지구력 증진효과
- 항암작용과 암예방효과

◆ 6년근 한국산 수삼을 선정
◆ 황토 / 맥반석 기마에 장작으로 쪄다
◆ 자연상태에서 건조
◆ 9종9포(홍삼) - 9번 찌고 9번 말림

※어열푸는데 탁월 ※임산부 안우유리에 드시면 요과 탁월
※손발이 저리고 뻘뻘하는데 1개월만 드시면 ok

약왕사 **9종 9포 홍삼 엑기스 90ml 60포**
토종 오가피엑기스 90ml 60포

◆ 입금계좌: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 약왕사)
※판매수익금은 약사전 불사에 사용됩니다.

참선 약사기도도량 약왕사
☎ 054) 371-6665, 010-2513-6665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뢰기기 05-0626호 인증

전자파 장애실험결과 **전자파 환경인증**

상생화학 배상보현 기인 **특허청 실용신안출원 원**

원격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면 80℃ 이상의 열과 생광광선이 발산되어 원격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강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 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속부터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격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격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배탈, 설사를 막읍시다.

날씨가 더울수록 우리의 배는 더 차가워지며 배가 차면 **질병의 원인**이 되며 또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 분은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북한 3대 명산품인 세계최귀의 금강약돌의 효능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약돌에서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명산품으로 세계최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육각거북건강매트, 오심전심페조끼, 헬스방석, 요추,경추베개, 족온기, 팔찌,목걸이, 베개볼 등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하신 분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 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금강약돌(02)723-0099 **늘함170-12-056037 정애영**

[생활명상서]

명상 그 특효의 지혜

- 다양한 명상법과 수행방법 안내 -

고독 지음

신국판 276쪽
₩10,000

☎ (주)미래1010

(머리글 중에서)

‘형상’과 ‘이름’에 집착하여 그 거짓됨을 알지 못한채 오로지 밖으로부터 구하여 탐진치는 더욱 강렬해지고 신구의(身口) 3업은 더욱 거친 모습으로 감각과 말초(末梢)의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좇아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흉악해진다. 참되지 못한 망명법과 순수하지 못한 환탁함으로써 중생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어 아! 의타기성(依他起性)은 실종되고 원성실성(圓成實性)은 매몰되도다.

인류는 2분법적 지식과 局所科學에 의지하여 일로 번영을 추구해 왔으나 끝내 ‘인’과 ‘밖’, ‘정신’과 ‘물질’ 양면에 걸쳐 共滅(共滅)의 재앙을 목전에 초래하고 말았다.

<과연 末法現代는 그 무엇으로 삼감을 찾을 것인가?>

구입문의

- 유명서점 · 불교서점
- 출판: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 353-6142, 010-2356-6142